

호기심으로 동참... 108배·좌선... 진지해진 눈망울

# “학점보다 소중한 자기반성 기회”

한여름의 가을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깊은 산중 직지사 절법전.

좌선을 끝내고 계단을 내려오는 학생들마다 다리를 곧추세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청소년 게시판**

**대불칭 지도자연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8월2일~4일까지 전주 송광사에서 제13차 전국불교청년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연수교육에는 1백50여명의 불교청년지도자들이 동참할 예정이며 특강(선수행), 공동체놀이, 사례발표(지역운동과 불교청년운동의 길잡이), 율력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02)738-3386 7

**구로복지관 여름캠프**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은 오는 31일부터 8월2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에서는 자연관찰, 극기훈련, 역사탐방(하회마을 안동댐 인속박물관) 및 미니올림픽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02)852-0625

**어린이 지혜한마당**

금강경독송회는 오는 29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경주 도루락일대에서 하계 어린이 수련대회를 실시한다. 어린이 지혜한마당으로 펼쳐지는 이번 수련대회는 공동체 놀이, 불교유적 탐방, 수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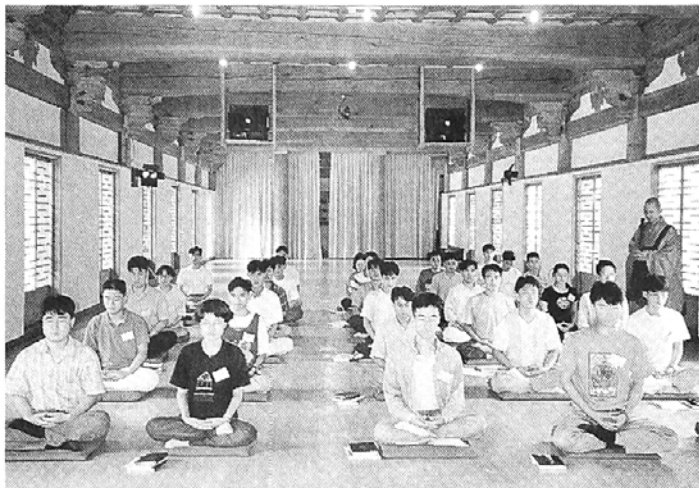
(02)742-0172

전날(5일) 난생 처음으로 해본 108배와 몇시간의 좌선으로 다리에 ‘알’이 났 것이다.

손을 씻은 후 다시 설법전에 모였다. 둘째날 점심시간. 발우를 앞에 두고 나란히 둘러앉은 학생들은 이미 세번의 경침을 한탄인지 발우공양 예법에 익숙한 듯 손놀림이 매끄럽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환경오염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표정으로 불교가 이렇듯 진작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있었음에 탄복하는 눈치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황악산 직지사 사에 개설된 1학점짜리 교양과목 ‘산사생활’이 과목을 수강한 33명의 동국대 학생들은 법요집을 하나씩 들고 좌정한 채 지도교수 현각스님(동국대

**동대생 33명 2박3일 직지사생활**



◇단기출가를 통한 ‘산사생활’에서 좌선에 몰입해 있는 동대생들. 직지사에서의 3일은 불교의 정신세계를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든 평가다.

그들의 갖가지 발원을 담아 환악산 골짜기를 덮었다.

7일, 직지사를 떠나기 직전 경내를 둘러보며 참가학생중 유일한 1학년생인 최현선양(불교학과)은 “좌선과 108배가 제일 힘들었지만 불교를 조금이나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2박3일의 소감을 말한다. 4학년 선배인 안영실양(회계학과)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같은 수련회에 또다시 참석하고 싶다”며 짧은 일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이제는 모두가 자못 진지하게 참선된 등기를 서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1학점 따려고” “호기심

에 해보고 싶어서” “스님들의 생활을 알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불교를 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학생은 의외로 소수였다. 33명의 학생들중 불교학과 학생은 단 한명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행정, 경영, 국문 등 19개 학과의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산사를 찾은 것이다.

만 화 **법구경**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이탈원

**“문화유산 숨쉬는 현장서 알찬 방학을...”**

## 박물관학교 속속 개관

여름방학을 맞아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과 전문박물관들이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우리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

그림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22일부터 3일간 열리는 ‘청소년 문화학교’, 29일부터 3일간 ‘엄마와 함께 듣는 문화교실’도 진행된다. 청소년 문화학교의 강좌 내용은 우리나라의 도자기, 한국의 불교미

지 ‘여름철 어린이 박물관 공예교실’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0431-55-1632). ‘엄마와 함께 듣는 박물관’이란 주제로 마련되는 청주박물관 공예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강좌

술, 문화재 사랑스케치 및 글짓기를 비롯 화염사 천은사 답사 등 다양한 문화교양강좌가 준비되고 있다.

오는 23일 부터 26일까지

청주박물관

부터 26일까지

부터 26일까지

부터 26일까지

내용은 토기, 부채, 가족공예, 한지공예 등이며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학부모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속공예는 불사리장엄구, 한국의 범종, 백제의 금동

제7회 청소년 강좌를 마련한다. (0652-223-5652) 이번 강좌에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바다와 제사, 전북지방의 불교 조각·역사·민속 도자기 등 전북지방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강좌가 진행된다.

경주박물관

부터 31일까지

부터 31일까지

**문화재감상·공예품 만들어 ‘나라사랑’ 고취**

광주·청주등서 청소년·성인대상 무료 강좌

한로와 사리감 등 우리나라의 금속공예의 기분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편성돼 있다. 한편 청주박물관은 8월 4일까지 ‘백제금동대향로와 청왕명사리감’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전주박물관

부터 26일까지

부터 26일까지

부터 26일까지

부터 26일까지

# 집집마다 「불자의 집」, 차량마다 「우리는 불자」 명판을 붙입니다

◆7도 칼라로 제작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몇 불자, 긍지있는 불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극락정토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불자의 집」 명판 붙이기 운동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한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한 이 운동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크기: 6cm x 7.5cm



크기: 3.5cm x 10.5cm

- 특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차량에 부착해도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4. 차량용(유리후면부착)으로 좋습니다
- 보급방법** 사찰, 단체에 보급합니다.
- 크기** 3.5cm x 10.5cm, 6cm x 7.5cm
- 보급가** 1개당 1,000원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